APEC과 역내 경제협력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학술 네트워크에서 정부 간 포럼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은 경제학자와 기업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연구자 및 의사결정자를 한데 모으는 회원위원회 네트워크인 태평양경제협력회의(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PECC)는 1980년 일본의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와 호주의 맬컴 프레이저 총리의 주도로 설립되었습니다. 첫 총회는 같은 해 호주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간 협력을 위한 토대의 상당 부분을 마련했습니다.[1] 그 국제사무국은 현재 싱가포르 서부 켄트 리지(Kent Ridge)의 한 주소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2] PECC는 이러한 논의에서 탄생한 공식 포럼에서 옵서버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3]

그 포럼이 바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입니다. 첫 회의는 1989년 11월 캔버라에서 장관급으로 열렸습니다. 12개 경제가 참석했습니다. 이후 회원은 태평양 양안의 21개 경제로 늘어났으며, 여기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그리고 아세안의 주요 회원국들이 포함됩니다.[4] APEC은 조약상의 근거가 없으며 합의(consensus)로 결정을 내립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회원들은 스스로를 '경제'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 덕분에 중국 홍콩(Hong Kong, China)과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가 주권국가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초기 개최국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APEC의 창립 경제 가운데 하나였으며, 리콴유가 아직 총리로 재임하던 1990년 7월 제2차 각료회의를 개최했습니다.[5] 경제적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교역 규모가 생산의 몇 배에 달하는 도시는 태평양 전역에서 개방된 시장을 촉진하는 포럼에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논리도 마찬가지로 분명했습니다. APEC은 냉전 말기에 미국을 동아시아 경제질서에 묶어 두었고, 이는 제F편 제IV장에서 설명하는 균형 전략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각료들이 1992년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뒤, APEC 사무국은 1993년 싱가포르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6] 이 선택은 정상회의가 회원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기구에서 싱가포르에 지속적인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2009년 11월 이 도시는 리센룽 총리 주재로 정상회의 자체를 개최했습니다.[7]

사무국과 그 직원

APEC 사무국은 작은 조직입니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사무국은 회원 경제에서 파견된 소수의 프로그램 디렉터 팀과, 이들을 보좌하는 전문 및 지원 직무의 전문 직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무국의 임무는 조정과 지원입니다. 회의를 준비하고, APEC 재원 사업을 관리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연간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예산은 최근 몇 년간 250개가 넘는 사업을 포괄해 왔습니다. 사무국은 2002년 품질경영에 관한 ISO 9001 인증을 취득했는데, 이는 당시 정부 간 사무국으로서는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8]

사무국 지도부의 성격은 2010년에 바뀌었습니다. 2009년까지는 해당 연도의 개최 경제가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직을 맡았기 때문에, 의장국이 바뀔 때마다 수장도 매년 바뀌었습니다. 2010년부터 사무총장은 3년 고정 임기로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임명됩니다.[9] 이 개혁으로 사무국은 연속성과 전문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APEC의 제도적 기억이 보관되는 장소로서 싱가포르의 위상도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지원단

APEC 각료들은 2007년 9월 정책지원단(Policy Support Unit)을 설치했으며, 이 조직은 2008년부터 포럼의 연구·분석 부문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10] 정책지원단은 싱가포르의 사무국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역원활화, 서비스, 구조개혁, 디지털 경제에 관한 연구를 내놓는 것 외에도, 회원들이 공동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웃 나라들의 개방성에 의존하는 도시에게, 역내 경제정책에 관한 상설 연구 조직은 그 자체로 유익한 이웃입니다. 그 분석가와 데이터와 워크숍이 싱가포르의 정부 부처, 대학, 싱크탱크의 논의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APEC이 금융에 갖는 의미

APEC은 기본적으로 무역 포럼입니다. 창립 당시의 포부는 1994년 보고르 목표(Bogor Goals)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선진 경제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 경제는 2020년까지 역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11] 포럼 자체의 수치에 따르면 이 지역은 인구 약 29억 5,000만 명으로, 2021년 세계 GDP의 약 62%, 세계 무역의 48%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회원 간 평균 관세는 1989년 17%에서 2021년 5.3%로 낮아졌고, 역내 실질 GDP는 19조 미국달러에서 52조 8,000억 미국달러로 증가했습니다.[12]

금융은 재무장관 회의라는 별도의 트랙을 통해 APEC에 들어왔습니다. 이 회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기적으로 열려 자본시장 발전, 인프라 금융, 금융포용을 다루어 왔습니다.[13] 금융 분야의 성과는 무역 분야에 비하면 소박합니다. APEC은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만들지 않으며, 감독 권한도 자체 기금도 없습니다. 싱가포르 금융 중심지에 대한 APEC의 가치는 다른 데 있습니다. 공무원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사이의 정기적인 접촉 관행, 실무그룹이 만들어 내는 연성 기준, 그리고 이 도시를 역내 경제 행정가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로 만드는 사무국의 존재가 그것입니다.

주

1. Wikiped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80년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와 맬컴 프레이저 총리의 주도로 설립; 1980년 호주에서 제1차 총회(PECC I) 개최; 정부와 재계의 사상가 및 의사결정자를 모으는 회원위원회 네트워크. ↩
2.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웹사이트(pecc.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하단: “29 Heng Mui Keng Terrace, Block A, 7th Floor, Singapore 119620”. ↩
3. Wikipedia,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APEC에는 아세안, 태평양도서국포럼, 태평양경제협력회의의 세 공식 옵서버가 있음. ↩
4. Wikipedia,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his led to the first meeting of APEC in the Australian capital of Canberra in November”; Wikipedia,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89년 캔버라 회의에는 12개국 장관이 참석; “Currently, APEC has 21 members.”. ↩
5. Wikipedia,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회의 목록: 제2차 회의는 1990년 7월 29일~31일 싱가포르에서 리콴유 총리 재임 중 개최. ↩
6. 1992년 9월 방콕에서 APEC 각료들이 사무국 설치를 결정하고 1993년 싱가포르에서 사무국이 문을 연 경위에 관해서는 APEC 사무국 연혁 및 1992년 Bangkok Declaration on APEC Institutional Arrangements(apec.org) 참조.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7. Wikipedia,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회의 목록: 제17차 회의는 2009년 11월 14일~15일 싱가포르에서 리센룽 총리 재임 중 개최. ↩
8. APEC Secretariat, “APEC Secretariat”(apec.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he APEC Secretariat is based in Singapore”; 사무국은 “is staffed by a small team of program directors, seconded from APEC member economies”; APEC Secretariat, “APEC Secretariat”(apec.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APEC's annual budget is also administered by the APEC Secretariat”, 사무국은 250개가 넘는 APEC 재원 사업을 감독; APEC Secretariat, “APEC Secretariat”(apec.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In 2002, the APEC Secretariat obtained ISO 9001 Quality Management Certification”. ↩
9. APEC Secretariat, “APEC Secretariat”(apec.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Up until 2009, host economy filled the position of executive director”; “From 2010, the appointment of an executive director is made on a three-year fixed-term basis”; 현 사무총장은 에두아르도 페드로사(Eduardo Pedrosa). ↩
10. Wikipedia,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he Policy Support Unit (PSU) was established by APEC Ministers in September 2007”, 2008년 활동 개시. ↩
11. Wikipedia,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APEC leaders adopted the Bogor Goals, which aimed for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in the Asia-Pacific”, 목표 시한은 선진 경제 2010년, 개발도상 경제 2020년. ↩
12. APEC, “Achievements and Benefits”(apec.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인구 약 29억 5,000만 명, “approximately 62 percent of world GDP” 및 “48 percent of world trade in 2021”; 평균 관세 “from 17 percent in 1989 to 5.3 percent in 2021”; 실질 GDP “from USD 19 trillion in 1989 to USD 52.8 trillion in 2021”. ↩
13. 1994년에 출범한 APEC 재무장관 회의(APEC Finance Ministers' Process)와 2015년 세부 행동계획(Cebu Action Plan),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Asia-Pacific Financial Forum) 등 그 이후의 이니셔티브에 관해서는 APEC Finance Ministers' Process 페이지(apec.org)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